



# 2013 현대차 임단투 - 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임금은 올리고

## 노동시간은 줄이자

임단투를 앞두고 현대차 사측이 노동자 양보를 떠들어 대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32개의 단협 개악안도 내놨다.

현대차지부가 61세 정년연장을 요구하자, 정년도 없이 이윤을 쌓고 있는 75세 정몽구가 임금피크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는데, 사측은 이런 흐름에 편승해 임금제도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기본급을 낮춰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하려는 노림수도 보인다.

나아가 현대차 사측의 <함께 가는 길>은 최근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비교하며 ‘임금 경쟁력 개선’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동자들은 외국 자동차 공장보다 임금을 절반만 받기 때문에 5개월 일을 더 한다.”(《들불》,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단)

게다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밤샘노동은 폐지됐으나 “현대차 기술직(생산직)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2천5백 시간에 육박”한다고 한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천7백64시간보다 7백여 시간이나 더 길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이처럼 영혼을 갉아먹는 고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동안, 사측은 사상 최대의 이윤을 챙겼다. 지난해에는 순이익을 9조 5백63억 원이나 챙겼다. 지난해까지 사측이 공간에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만 무려 33조 원이다. 따라서 현대차 노동자는 기본급을 대폭 인상받을 권리가 있다.

앞서 13주 동안 주말특근 거부 투쟁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는 “주말에 쉬니까 너무 편하다. 아예 이 참에 특근을 없애자. 대신 기본급을 올려야 임금을 벌충할 수 있다”는 정당한 얘기가 나왔다. 이 열



민주노총의 오른팔 담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앞장서 싸워보자. 7월 12일 폭력을 뚫고 라인을 점거한 비정규직 동지들

망 때문에 사측과 집행부의 부적절한 합의에도 이 투쟁은 몇 주나 더 지속됐다.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떨어진 기계 장치에 깔려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에만 혈안이 된 사측에 의한 간접살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데도 사측은 양보는커녕 투쟁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고소·고발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사측에 강력한 맞불을 놔야 한다.

오랜 열망인 기본급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평일 8시간 근무, 특근폐지)을 위해 싸워야 한다.

### 맞불

지난해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부분파업으로 힘을 제한했는데, 이번에는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같은 요구들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박근혜의 정치 위기 속에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 분위기에

앞장서 동참해야 한다. 현대차 부품업체 엠에스오토텍에서 노동자 투쟁이 승리했다. 삼성에서는 무노조 정책에 균열을 내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조 깃발을 올렸다. 건설 노동자들도 파업 하루 만에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이 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 전진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노동자 투쟁 지지 기사가 실린 **레프트21**을 구입해 보십시오.

4공장 구 정문 앞 동방서림이나 울산지역 (레프트21) 정기 가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격주 월요일 :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2:30~3:30) → 다음 가판 8월 12일

• 격주 목요일 :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 다음 가판 8월 15일

구입 문의: 02-777-2792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left21.com>



다시 라인을 끊기 시작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굳게 어깨 걸고 끝까지 함께 하자

비정규직지회가 7월 10일 대체인력저지 투쟁을 벌여 울산 1공장, 4공장, 변속기 공장의 생산에 타격을 줬다. 고무적이기도 같은 날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라인을 점거해 생산에 타격을 가했다.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앞서 7월 9일에 전주 공장 트럭부 라인을 한 시간 가량이나 점거했다. 정몽구는 관리자와 용역 천여 명을 동원해 폭력 탄압에 나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12일에도 다시 투쟁했다.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속에서 폭력을 뚫고 울산 3공장으로 진입해 라인을 점거했다.

이것은 특별교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신규채용만 고집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답변이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 효과적이라면 정규직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시켜 줬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05년 현대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2.4퍼센트가 “나도 언젠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설움과 차별과 불평을 끝내야 한다.

사측은 ‘비정규직 때문에 정규직 입단협이 안되고 있다고 하며 비정규직을 고립시키고 무릎꿇리려 할 것이다. 그 다음엔 ‘비정규직 외면한 정규직이 배부른 요구를 한다며 정규직을 공격할 것이다. 반면에 비정규직 투쟁이 전진하면, 정규직 입단투도 전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입단투와 비정규직 투쟁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돼야 한다.

어제 아산비정규직지회 사무장 박정식

동지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비정규직더러]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고, 참고, 참아야 하는지?”라고 물었다.

“죽어라”하는 정몽구에 맞서서 정치적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7월 20일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올 것이다. 누구보다 정규직 노동

자들이 제일 많이 함께해야지 않겠는가. 작업장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연대와 사회적 연대를 결합시켜 “죽어라”하는 정몽구의 입을 막아 버리고 무릎 꿇게 하자.

## 공동의 적에 맞서 기아차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기아차 화성 3공장 조립 1반에서는 신규인원 투입 약속 위반에 맞서 6시간 이상 살랭이 파업[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 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비공인 파업]이 벌어졌다. 화성 3공장에서 이런 일은 5년 만이다.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하며 막아 냈다. 사측은 결국 뒤로 물러서 사과하고 인력 투입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6일 특근 거부 투쟁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사측은 노사 합의로 특근을 시행

하려 했지만 현장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하지 못했다.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현대차지부가 4~5월 특근거부 투쟁을 벌일 때, 사실상 함께하지 않았다. 결국 현대차지부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로 아쉽게 마무리됐다.

그러자 사측은 이제 기아차지부를 향해 ‘현대차처럼 8+9로 특근을 운영해야 한다’, ‘부족 인원은 단기 계약직을 투입하겠다’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아차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긴 토론 끝에 전 공장 특근거부투쟁을 결의했다. 그런데 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 집행부는 대대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특근을 그대로 하려 했다. 분노한 대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조립, 도장, 차체에서 자발적인 특근 거부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라인은 가동되지 않았고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하지 못했다.

이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급 대폭 인상’을 통해 특근 자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7월 13일 철도 노동자와 촛불이 합세하면서 서울 광장에 2만여 명이 모였다.

집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박근혜

## 저들의 위기는 투쟁의 기회다

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몸통은 ‘이명박근혜’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 방송이 총동원된 반동적 정치 공작이 지금 사태의 본질이다.

이 총체적 정치 공작은 2008년 촛불운동과 세계경제 위기 이후 우파 지배자들의 위기의식과 공포감에서 비롯했다. 노동자·민중 운동을 단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어갈 우파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런 공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 한 달 새에만 MBC <시사매거진 2580> 불방 사태, YTN 보도 통

제와 보도국 회의 사찰, 시국선언 학생회 사찰 등이 밝혀졌다.

박근혜는 대화록 공개 때는 “NLL은 피로 지킨 곳”이라며 물타기에 앞장섰고, 지금은 “자체 개혁을 하면 된다”며 국정원을 감싸고 있다.

박근혜는 도리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기능까지 국정원에 맡기려 한다. 고양이에 아예 생선가게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도 민영화 등 각종 개악 조처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국선언은 이제 교수와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 번

지고 있다. 전교조, 현대차지부 등 노동계도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다.

이미 촛불은 서울에서만 2만 명 규모에 다다랐고, 진주의료원, 철도 민영화 등에 맞선 노동자 저항과 만나고 있다. 진보세력과 노동운동은 쟁점을 결합시키며 ‘이명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총체적 반우파 투쟁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대차지부가 시국선언 성명서에서 옳게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없이는 노동기본권도 생존권도 없다.” 박근혜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더욱 밀고 나가야 한다.

고공농성 280일 철탑의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현대차 희망버스 (2013년 7월 20일(토)~21일(일))

20일(토) 오후 5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울산공장 정문 오후 6시 힘내라 비정규직 1차 힘모으기 오후 10시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 문화제(예정)

21일(일) 오전 8시 힘내라 비정규직 2차 힘모으기 오전 10시 정리